

광주제조·무역업체 45% “日수출규제 부정적 영향”

광주상의, 122개 업체 수출규제 조치 영향·대응계획 조사

한-일 경제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 표시 외교 출구전략·부품 소재 국산화 필요 제기

광주지역 제조·무역업체 절반가량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 상당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이로 인한 한-일 경제갈등 장기화 우려에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제조·무역업체 122개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체 45.1%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54.1%는 “별

다른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들의 57.3%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자사 제품의 일본 수출 부정적 영향’(32.7%),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 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적응 애로’(21.8%),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 등을 꼽았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일본산 부품 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

의 없기 때문’(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할 수 있기 때문’(16.7%) 등을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0.8%)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업체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 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은 반면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 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된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업체들의 대응

계획은 ‘대체재 조달’(29.1%), ‘공정 변경’(21.8%) 등이고, 27.3%는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대책으로 ‘부품·소재·장비 공급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8.5%),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31.7%), ‘규제 특례조치 확대’(13.2%), ‘폐해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10.7%), ‘폐해기업 납세 유예 지원’(5.9%) 등을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30.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한전, 2분기 영업손실 2천986억원 기록

지난해 비 3천885억원 개선...3분기 연속 적자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천986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천885억원 개선됐지만 3분기 연속 적자 구조를 이어갔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2.0%(2천662억원) 감소한 13조710억원, 당기순손실은 5천64억원 회복한 4천12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오르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구입비가 5천억원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중 진행된 대규모 예방정비가 끝나면서 82.8%로 상승했다.

다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여전히 높은 연료가격 등으로 인해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1·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반기 영업손실은 9천28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보다 1천13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상반기 1조1천69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1천733억원으로 43억원 더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29조432억원에서 28조3천194억원으로 7천238억원(-2.5%) 줄었다.

한전은 “통상 3분기에는 영업실적이 좋은 편”이라며 “여름철 전력판매량 증가 등에 따른 전력판매수익 증가가 하반기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성기자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본격 육성

중진공 광주본부, 21일까지 2차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수출 스타기업(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온라인수출 스타기업 구축·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최대 4천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과 우수기업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 내년 사업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

했으며, 사업기간 동안 47개 참여기업이 411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현재 5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15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는 “중진공 지원으로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배너 광고 등 쇼핑몰 홍보를 실시해 수출액이 10배 증가했다”며 “올해는 중진공 지원으로 쇼핑몰 리뉴얼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중진공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56/9766)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성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국산 수산물 보양식 행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광복절을 맞아 제철 국산 수산물 보양식인 민어, 활전복, 장어(할복, HMR), 자숙문어, 생물 오징어를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자별 한정 수량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1,940선 ‘턱밑’

코스피가 14일 미국발 훈풍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4포인트(0.65%) 오른 1,938.3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0.35포인트(1.06%) 오른 1,946.18로 시작해 강세 흐름을 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부과가 연기된 품목에 휴대전화, 컴퓨터 등 주요 정보기술(IT) 제품이 포함돼 있어 IT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5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1억원과 242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 약 1조8천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2016년 1월 7일-26일의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이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0포인트(1.08%) 오른 597.15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제약·바이오기업, 올해 5천300여명 신규 채용

올해 99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5천304명을 신규 채용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월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앞서 회원사와 일부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에 3천117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 2천187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99개 업체 가운데 채용 박람회 부스 참여 기업은 68곳이다. 이들 68개 기업 중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21곳은 올 한해 973명을, 채용 상담을 진행하는 47곳은 3천254명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다. 부스에 참여하지 않는 31곳의 올해 채용 인원은 1천77명이다.

채용 직군별로는 영업 분야가 1천6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1천525명), 연구개발(773명), 기타(793명), 인허가(321), 국제업무(106명) 순이었다.

올 한해 3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GC녹십자와 셀트리온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4곳이다.

GC녹십자는 올 한해 채용 규모가 621명에 달해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았다. GC녹십자는 상반기 451명에 이어 하반기 17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외 셀트리온제약(467명)이 두 번째

로 많았다. 셀트리온제약은 상반기에 267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200명을 새로 맞아들이릴 계획이다.

상반기에 184명을 선발한 한미약품은 하반기에 제약기업 중에선 가장 많은 211명을 새로 뽑는다.

종근당은 하반기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올 한해 380명의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보,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원·부자재를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기존 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수출 예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은 셀트리온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등 4곳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보증비용 95%를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깎아 준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8천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상점 전기요금 줄이는 4가지 방법

- ① 냉·난방 중일 때는 상점 문이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개방형 냉방, 냉동 전열장은 비닐 커튼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여주세요.
- ③ 전자제품과 콘센트, 멀티탭 등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 ④ 영업 종료 후 간판을 꺼두시면 시간당 0.5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작센로 감미료 무첨가향료